GTO　[If you don't know what to choose, use yahoo. -> http://honyaku.yahoo.co.jp/]

원색의 상상력 2의 「누에고치가 보는 꿈」을 읽고 있다.
나의 작품은, 일차 심사로 낙선이었기 때문에, 다음의 작품 만들기의 참고로 하려고 읽고 있다.
멋지다, 정말로. 그리고 능숙하다.
페이지를 걷어 붙여 읽어내면, 진짜로. 조금 감동했다.
게다가 SF인데 단편이니까 조작도 간단하고 좋다.
SF는, 돈을 벌 수 있는 없다고 말해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라이트 노벨과 비교하면, 그것은 조금은 다를지도 레 없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는 서평가도 말하고 있기도 했고, 그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읽기등으로 멈추면 조금 무섭다. SF인데 앞에 나아가지 않고.
읽기 쉬움에 관해서는 아마 SF도 라이트 노벨도 변하지 않지요.

하드 SF는, 읽은 적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라이트 노벨과 같은 문체인가, 난해한 문체인 것으로, 그렇게 바뀌면,
그렇게 바뀌면 김치 수상해 아무도 라이트 노벨은 사지 않지요.

거짓말에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히가시칸토 자동차도로, 성실하게,
「 제10회 고마츠사쿄상」의 회수를 추월했다.
결국은 「 제11회 일본 SF신인상」도 12번째가 없고,SS축제는 아마, 다음도 있다.
그 만큼으로 개인적으로, 뭐 만족합니다.

*

이것은, 바렌치노라고 하는, 트로이의 목마가 뇌 골수를 어루만진 순간에 망막 컴퓨팅이 본 악몽.

그리고, 그 악몽은 깨지 않다.
깨기 위해서 눈꺼풀에 조를 세우고 시신경으로부터 당겨 잘게 썰었다.
양손에는 젖은 고환과 같은 감촉을 느낌어둠에 싸였다.

영원히 어둠, 바렌티노의 버퍼에 받아들여지고 마음은 망가지고 절규를 지르지만,
소리가 되는 것도 없고, 의미 불명의 문자열로서 흘러 떠나 간다.
엔드 스테이지의 막은 내리지 않는다.

*

꿈 볼 수 있었습니까?
안녕!